

대학생의 물질주의와 이상적 배우자상의 관계*

김 지 선

설 경 옥[†]

이화여자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물질주의와 이상적 배우자상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외재적 가치인 물질주의를 추구할 때 이상적 배우자 기준으로 ‘능력/자원’, ‘외모/매력’과 같은 외재적 기준을 많이 언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뜻함/신뢰’와 같은 내재적 기준을 적게 언급하고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또한, 이상적 배우자 기준에서 성차가 나타나고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있는지 검증했다. 연구 1에서는 남녀 대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묻는 자유응답 설문을 실시했고 ‘따뜻함/신뢰’, ‘외모/매력’, ‘능력/자원’의 언급 비율과 물질주의 및 성별의 관계를 검증했다. 가설대로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능력/자원’을 높은 빈도로, ‘따뜻함/신뢰’는 낮은 빈도로 언급했다. 또한, 가설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많이 언급했으며 ‘능력/자원’에서 물질주의와 성별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연구 2에서는 이상적 배우자 기준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각 기준의 중요도와 물질주의 및 성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남녀 대학생 370명에게 이상적 배우자 특징의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가설대로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외재적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가설과 달리 ‘따뜻함/신뢰’에서는 물질주의와 상관이 없었다. 성차는 가설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질주의와 성별의 유의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주요어 : 물질주의, 이상적 배우자상, 한국 대학생, 가치, 성차

* 이 논문은 김지선(2017)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 02-3277-3918, E-mail : koseol@ewha.ac.kr

물질주의는 돈과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삶의 중심이 되고, 이를 성공의 지표이자 행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삶의 가치이다(Richins & Dawson, 1992). 물질주의는 타고난 성격 특성이라기보다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학습되는 가치로(Richins & Dawson, 1992),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안내하는 기준이 된다(Kasser, 2016; Richins, 2004).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물질주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지난 30여년간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물질주의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백지숙, 박성연, 2004; 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 & Tay, 2010).

잠재적 연인이나 배우자가 될 상대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이상형(ideals)에도 개인의 가치가 반영된다. Fletcher, Simpson, Thomas와 Giles(1999)는 이상적 기준 모형(Ideal Standard Model)을 통해 잠재적인 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따뜻함이나 신뢰와 관련된 성격 특징, 신체적인 매력이나 활력과 관련된 특징,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과 관련된 특징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상적 배우자 특징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문화 보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회학습적 관점에 의하면 개인이 학습한 가치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상적 배우자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Goodwin & Tinker, 2002; Lam et al., 2016). 예를 들어 가족 간의 화합과 결속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대만 대학생은 북미 대학생보다 이상적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과 관련된 특징을 더 많이 언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Lam et al., 2016). 이 연구는 사회문화적 관점에 의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 업인 성인기 초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물질주의 가치를 개인이 학습한 정도에 따라 이상적인 배우자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가치에 따른 이상적 기준의 차이

이상적 기준 모형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상대에게 바라는 이상적 기준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이다(Fletcher & Simpson, 2000). Fletcher와 동료들(1999)은 연구 참여자들의 자유 응답 방식을 통해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한 이상적 기준의 내용을 ‘따뜻함/신뢰’, ‘외모/매력’, ‘능력/자원’이라는 독립된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이상적 기준 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뜻함/신뢰’는 친밀성, 다정함, 신뢰 및 충실성과 관련된 성격 특징들을 포함하며, ‘외모/매력’은 외모, 매력 및 활기와 같은 신체 특징들을 포함한다. ‘능력/자원’은 사회적 지위 혹은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특징들을 포함한다. 이 세 기준은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남녀의 성공적인 짝 선택 전략으로 설명되었다(Buss & Schmitt, 1993). 구체적으로 개인은 생식력이 높고 자녀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신체적으로 매력 있고 건강하며 활기 있는 상대(외모/매력)를 찾게 되고, 자녀에게 헌신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따뜻하고 신뢰할 만한 특징을 지녔는지(따뜻함/신뢰)를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고 사회적 지위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지위나 자원 혹은 이를 획득할 만한 능력 요소(능력/자원)를 고려한다(Fletcher et al., 1999). Fletcher 등(1999)은 관계 기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이상적 배우자 기준은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고 모든 사람이 성공적으로 짝을 선택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도록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이상적인 배우자의 기준이 세 가지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화론적 관점과는 달리 사회학습적 관점에 의하면 개인이 학습한 가치에 따라 이상적 배우자 기준의 내용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Goodwin & Tinker, 2002). 가치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의하는 원칙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Barnea & Schwartz, 1998), 배우자 선택 역시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Goodwin & Tinker, 2002; Li, Patel, Balliet, Tov, & Scollon, 2011). Lam 등(2016)은 대만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들 간 문화 비교 연구를 통해 상호의존적 자기구성이 더 높은 대만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가족 지향적인 특징(예: 양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을 더 많이 언급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였다.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도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선호하는 배우자의 특징은 다르게 나타났다(Goodwin & Tinker, 2002). 영국에서 Schwartz의 가치 척도(Schwartz, 1992)를 사용하여 개인의 가치와 선호하는 배우자의 특징과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할수록 더 전통적인 대상을 원하고 쾌락주의와 같이 자기 고양 가치를 추구할수록 더 신체적으로 매력적이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집안 배경이 좋은 대상을 원하였다(Goodwin & Tinker, 2002). 이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 가치 중 하나인 물질주의 추구 정도에 따라 한국 대학생들의 이상적 배우자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했다.

물질주의와 이상적 기준 모형

물질주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발달과정에서 학습에 의해 형성된 가치, 태도로서 개인이 속한 환경과 구조를 해석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안내한다(Kasser, 2016; Richins, 2004). 물질주의는 외모, 인기, 명성,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재적 가치로 분류되며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 것,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돋는 것,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것, 영성적인 것들과 연관이 있는 자기 초월적이고 내재적 가치와는 상충한다. 물질주의를

추구할 때 개인은 내재적 가치를 추구할 가능성은 적지만, 외모, 인기, 사회적 지위와 같은 다른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Kasser, 2016). 이상적 기준 모형의 세 가지 기준 (Fletcher et al., 1999)도 외재적 기준과 내재적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상적 기준을 내재적 기준과 외재적 기준으로 분류한 연구에 의하면 ‘따뜻함/신뢰’에 속하는 특징들은 관계를 촉진하고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인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의 충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재적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은 외재적 기준으로 분류되었다(Rodriguez, Hadden, & Knee, 2015).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개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외재적 기준의 중요도가 커지는 것과 같아(Dittmar, 2007) 배우자를 평가하는 기준에서도 외재적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 예상된다. 북미 여성과 이들보다 물질주의가 높은 싱가포르 여성과 비교했을 때, 싱가포르 여성은 북미 여성보다 이상적 배우자상에서 외재적 기준을 더 많이 강조한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Li et al., 2011). 이 연구에서는 외재적 가치에 속하는 물질주의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이상적인 배우자 특징으로 내재적 기준에 속하는 ‘따뜻함/신뢰’와 관련된 특징들을 더 적게 언급하고 중요도를 낮게 지각하는 반면, 외재적 기준에 속하는 ‘능력/자원’, ‘외모/매력’과 관련된 특징들을 더 많이 언급하고 더 중요하게 지각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상적 배우자 기준 성차

진화론적 관점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의 기준에서 성차가 있다(Buss, 1995). 자녀 양육에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여성은 배우자를 고를 때 자신과 자녀를 돌볼 능력

과 자원이 풍부한 사람을 선호하는 반면,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남성은 배우자의 외모와 신체 매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며,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러한 성차는 증명되었다(Buss et al., 1990; Feingold, 1992; Hatfield & Sprecher, 1995). 국내 연구에서도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여성은 남성의 학벌과 생활력을 더 중요시한다는 성차가 나타났다(서병숙, 정해은, 1994). 한편, ‘따뜻함/신뢰’에서는 성차가 없거나 성차의 방향이 혼재되어 나타났다(Buss & Barnes, 1986; Fletcher et al., 1999; Lam et al., 2016).

사회학습적 관점의 연구자들은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성차를 남녀가 다른 사회적 역할을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Eagly & Wood, 1999). 전통적으로 남성에게는 사냥과 같이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지만 여성에게는 양육과 가사노동과 같은 역할이 주어지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높은 지위와 충분한 자원을 얻기 힘든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여성은 사회적 지위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상대의 능력과 자원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고, 남성은 자신의 지위와 자원을 여성의 외모와 교환하고자 했다. 따라서 성차의 크기는 개인의 상황이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여성의 경제력이 있거나(Moore, Cassidy, Smith, & Perrett, 2006)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정도가 작을 때(Eastwick et al., 2006) 성차의 크기가 감소했다.

성별에 따라 물질주의의 추구 정도와 이상적 배우자의 기준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Li 등(2011)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성가포르 여대생들이 북미 여대생들보다 배우자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물질주의와 배우자 기준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에게는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자원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방법이

기 때문에(Eagly & Wood, 1999) 여성이 남성보다 물질주의가 높을 때 배우자의 ‘능력/자원’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도 유사한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광고 등의 대중매체에서 여성의 외모와 신체가 상품화되어 묘사되는 경우가 남성의 외모와 신체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박성현, 2015; Harper & Tiggemann, 2008) 여성의 외모와 신체가 물질적인 가치와 연합하여 인식되기 쉽다. 또한, 전통적인 남성의 성역할에 따르면 남성은 가정 내에서 경제적 주체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물질주의를 추구할 수록 남성은 자신의 ‘능력/자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이를 배우자의 ‘외모/매력’과 교환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물질주의를 추구할 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배우자의 ‘외모/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에서는 물질주의를 추구할 수록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했다.

연구가설

이 논문에서는 두 개의 연구를 통해 한국 대학생의 이상적 배우자 기준을 살펴보고,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에 따라 배우자 기준이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연구 1은 남녀 대학생이 자유 응답 방식으로 이상적 배우자 특징을 보고했고, 물질주의에 따른 이상적 배우자 기준별 언급 비율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재적 가치에 속하는 물질주의가 높은 대학생들은 이상적인 배우자 기준으로 내재적 기준에 속하는 ‘따뜻함/신뢰’는 적은 비율로 언급하지만, 외재적 기준에 속하는 ‘능력/자원’과 ‘외모/매력’과 관련된 특징들을 더 많은 비율로 언급할 것이라 예상했다(가설 1). 또한, 이상적 배우자상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Buss, 1989; Fletcher, Tither, O'Loughlin, Friesen, & Overall, 2004)와 같이 여성

이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더 많이 언급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많이 언급할 것이라 예상했다(가설 2). 끝으로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의 언급비율에서 성별과 물질주의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여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많이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설 3).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된 이상적 배우자 특징 목록을 요인분석하여 물질주의 그리고 성별에 따른 특징의 중요도 차이를 비교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 따라(Fletcher et al., 1999) 이상적 배우자상 특징이 ‘따뜻함/신뢰’, ‘능력/자원’, ‘외모/매력’ 세 가지 요인의 특징으로 구성 되는지 확인하였다(가설 4).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내재적 기준에 속하는 ‘따뜻함/신뢰’의 중요도는 낮게, 외재적 기준에 속하는 ‘능력/자원’의 중요도는 높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설 5). 연구 1과 유사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그리고 남성은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설 6). 끝으로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의 중요도에서 성별과 물질주의의 상호작용이 유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가설 7). 이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1

가설 1.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이상적인 배우자의 기준으로 ‘따뜻함/신뢰’를 적게 언급하고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을 많이 언급할 것이다.

가설 2.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남성은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많이 언급할 것이다.

가설 3. 성별과 물질주의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많이 언급할 것이다.

연구 2

가설 4. 한국 대학생의 이상적인 배우자 기준은 ‘따뜻함/신뢰’, ‘능력/자원’, ‘외모/매력’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될 것이다.

가설 5.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이상적 배우자 기준으로 ‘따뜻함/신뢰’의 중요도를 낮게 보고하고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의 중요도를 더 높게 보고할 것이다.

가설 6.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남성은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가설 7. 성별과 물질주의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들이 보고하는 이상적 배우자상 특징 목록을 도출하고 물질주의 수준에 따라 이상적 배우자상 특징의 언급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정 이론이나 연구자의 선행적인 판단에 근거해 제작된 특징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언어로 언급하는 이상적 배우자상의 특징들(Fletcher et al., 1999)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의 특징에 대해 자유 응답 방식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사회학습적 관점에서 한국 대학생의 물질주의에 따라 언급하는 이상적 배우자 기준의 내용이 다를 것이라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외재적 가치에 속하는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내재적 가치에 속하는 ‘따뜻함/신뢰’와 관련된 특징들을 더 적게 언급하지만, 외재적 기준에 속하는 ‘능력/자원’ 및 ‘외모/매력’과 관련된 특징들을 더 많이 언급할 것이라 예상했다(가설 1). 또한, 물

질주의와 함께 성별도 이상적인 배우자 기준 언급 비율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는지 검증했다. 선행연구와 같이(Buss & Schmitt, 1993; Fletcher et al., 2004; Lam et al., 2016)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더 많이 언급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의 '외모/매력'을 더 많이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설 2). 마지막으로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에서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더 많이 언급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많이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설 3).

방법

연구대상

연구 1에서는 다섯 개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설문 참여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총 133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열명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123명(남자 63명, 여자 60명) 자료를 사용했다. 전체 평균 연령은 만 22.15세($SD = 2.23$)였으며 남녀 각 집단은 21.70세($SD = 2.73$), 22.62세($SD = 1.40$)였다. 학년별로는 일학년 25명(20.33%), 이학년 14명(11.38%), 삼학년 16명(13.01%), 사학년 63명(51.22%), 기타 5명(4.07%)이었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음료 상품권 1,000원이 제공되었다.

측정 도구

이상적 배우자 특징 자유응답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인의 이상적인 배우자로서 갖추어야 할 특징들을 생각나는대로 모두 기술해 주세요."라는 지시문을 제시하여 최소 다섯 개 이상, 최대 15개 이하로 기술하도록 했다.

물질주의(Material Values Scale: MVS)

물질주의는 Richins와 Dawson(1992)¹이 개발한 물질주의 가치 척도(MVS)를 유지해, 설경옥(2018)²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물질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성공 성향(예: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다섯 문항, 물질을 획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심 성향(예: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여섯 문항, 물질을 획득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 행복 성향(예: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할 것이다.') 네 문항의 세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의 오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 이었다.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대답한 특징들을 의미 있는 목록으로 축약하기 위해서 상담심리학 전공 심리학 석사과정생 세 명의 평정자들이 일차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특징들을 하나의 특징으로 묶는 작업을 했다. 평정자들은 연구 가설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유의어들이나(예: 자상한, 친절한)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했지만 의미가 유사한 특징들(예: 이해심이 많은, 이해심이 깊은)을 한 특징으로 묶었다. 세 명의 평정자들이 독립적으로 코딩을 했고 평정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PSS 21.0을 사용해 급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검증 후 확정된 목록에 포함된 이 상형 특징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했다.

이차 평정에서는 일차 평정에 참여하지 않은 상담심리학 전공 심리학 석사과정생 두 명이 일차 평정에서 선별된 특징을 '따뜻함/신뢰', '외모

/매력', '능력/자원' 세 가지 범주로 묶는 작업을 했다. 평정작업에 앞서 평정자들은 연구 가설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Fletcher 등(1999)의 논문에서 제시된 '따뜻함/신뢰', '외모/매력', '능력/자원' 세 가지 범주의 정의와 예시를 충분히 숙지한 후 독립적으로 각각의 특징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고, 평정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카파분석을 실시했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서 물질주의 평균값과 '따뜻함/신뢰', '능력/자원', '외모/매력'이 언급된 비율과의 상관분석을 했다. 이후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남 = 0, 여 = 1) 성별과 각각의 기준의 언급 비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설 3)를 검증하기 위해 물질주의 평균값과 성별을 독립변수, '능력/자원'과 '외모/매력' 언급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이상적 배우자상 특징과 빈도

연구 참여자들은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7.07, 2.38개의 특징을 기술했고 남자는 평균 6.29개와 표준편차 1.70, 여자는 평균 7.90개와 표준편차 2.70의 특징을 기술하여 여자가 남자 보다 유의하게 많은 특징을 언급했다, $t(121) = 3.99, p < .001$. 세 명의 독립된 평정자들이 동일한 혹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특징을 하나로 묶었을 때 평정자 간 신뢰도 값을 나타내는 굽 내 상관계수 값은 .90로 좋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p < .001$.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평정자 간 논의를 통하여 해결하였고 총 134개의 특징이 얻어졌다. 이 가운데 Fletcher 등(1999)의 분류 방식을 따라 연구 참여자들 123명의 삼 퍼센트 인 네 번 미만으로 언급된 특징들을 제외했다. 그 결과 최종적인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은 63개

가 생성되었다.

표 1에 모든 참가자가 언급한 전체 이상적 배우자 특징 중 각각의 특징이 언급된 비율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예쁜거나 잘생긴(57.72%)을 가장 많이 기술하였고 다음으로는 배려심이 있는(48.78%), 이해심이 많은(38.21%)을 이상적인 배우자 특징으로 기술했다. 그다음으로는 능력 있는(35.52%), 착한/좋은 인성(25.20%), 재미있는/유머러스한(21.14%), 대화가 잘 통하는(19.51%), 키(17.89%) 순서대로 언급하였다.

성별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남성은 예쁜/잘생긴(71.38%), 이해심이 많은(41.06%), 배려심이 많은(37.90%) 순서로 많이 언급했고, 여성은 배려심이 있는(60.00%), 능력 있는(50.00%), 예쁜/잘생긴(43.33%) 순서로 많이 언급했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효와 관련된 특징인 예의 바른(13.82%),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4.88%)과 함께 가족 배경과 관련된 특징인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6.50%), 부모님의 경제력(3.25%) 등도 발견되었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이차 평정을 통해 63개 특징을 '따뜻함/신뢰', '능력/자원', '외모/매력'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평정자 간 신뢰도는 카파 값이 .8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세 가지 범주는 부록으로 첨부했다. 물질주의 평균값은 3.10이고 표준편차는 0.64였으며, 남녀 간 평균 차이는 유의 수준에 근접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물질주의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t(121) = -0.19, p = .061$. 물질주의 및 성별에 따른 세 가지 이상적 배우자 기준의 언급 비율을 비교하고자 개별 참가자가 언급한 특징 중 세 가지 범주에 속한 특징이 언급된 비율의 평균을 산출했다. '따뜻함/신뢰'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M = 0.54, SD = 0.20$), '외모/매력'과($M = 0.29, SD = 0.20$), '능력/자원'($M = 0.17, SD = 0.14$) 순으로 언급되었다.

물질주의와 '따뜻함/신뢰'는 상관이 부적으로

표 1.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과 빈도표 ($N = 123$)

| 이상적 특징 | 빈도(%) | | | 이상적 특징 | 빈도(%) | | |
|-----------------------------------|-------|-------|-------|----------------------|-------|-------|------|
| | 남 | 여 | 계 | | 남 | 여 | 계 |
| 1. 예쁜/잘생긴 | 71.38 | 43.33 | 57.72 | 33. 밝은 성격 | 9.48 | 3.33 | 6.50 |
| 2. 배려심 있는 | 37.90 | 60.00 | 48.78 | 34. 애교가 많은 | 9.48 | 1.67 | 5.69 |
| 3. 이해심이 많은 | 41.06 | 35.00 | 38.21 | 35. 성 평등적인 | 0.00 | 11.67 | 5.69 |
| 4. 능력 있는 | 15.79 | 50.00 | 32.52 | 36. 차분한 | 8.21 | 3.36 | 5.69 |
| 5. 착한/좋은 인성 | 33.48 | 16.67 | 25.20 | 37.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이 있는 | 11.37 | 0.00 | 5.69 |
| 6. 재미있는/유머러스한 | 18.95 | 23.33 | 21.14 | 38. 바람기 없는, 한 사람만 보는 | 3.16 | 8.33 | 5.69 |
| 7. 대화가 잘 통하는 | 17.68 | 23.33 | 19.51 | 39. 신뢰할 수 있는 | 5.05 | 6.67 | 5.69 |
| 8. 키 | 9.46 | 26.67 | 17.89 | 40. 지적인 | 3.16 | 8.33 | 5.69 |
| 9. 유사한 취미 생활/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 17.68 | 11.67 | 14.63 | 41. 소신/주관이 있는 | 8.21 | 1.67 | 5.69 |
| 10. 경제력이 있는 | 3.16 | 26.67 | 14.63 | 42.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 5.05 | 5.00 | 4.88 |
| 11. 예의 바른 | 17.68 | 10.00 | 13.82 | 43. 온화한 | 3.16 | 6.67 | 4.88 |
| 12. 건강한 | 11.37 | 15.00 | 13.01 | 44. 훈훈한/인상이 좋은 | 1.90 | 8.33 | 4.88 |
| 13. 가정적인 | 0.00 | 23.33 | 11.38 | 45. 가식 없는/솔직한 | 6.32 | 1.67 | 4.88 |
| 14. 가치관이 맞는 | 8.21 | 15.00 | 11.38 | 46. 겸손한 | 1.90 | 6.67 | 4.88 |
| 15. 지혜로운/현명한 | 17.68 | 5.00 | 11.38 | 47. 공감 능력이 있는 | 3.16 | 5.00 | 4.07 |
| 16. 꿈과 목표가 있는 | 12.63 | 8.33 | 10.57 | 48.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 3.16 | 5.00 | 4.07 |
| 17. 몸매가 좋은 | 11.37 | 10.00 | 10.57 | 49.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 3.16 | 5.00 | 4.07 |
| 18. 귀여운 | 15.79 | 3.33 | 9.76 | 50. 잘 꾸미는 | 6.32 | 1.67 | 4.07 |
| 19. 아이들을 좋아하는 | 8.21 | 10.00 | 8.94 | 51. 서로 존중해주는 | 1.90 | 6.67 | 4.07 |
| 20. 같은 종교 | 8.21 | 8.33 | 8.13 | 52. 감정 표현을 잘하는 | 1.90 | 5.00 | 4.07 |
| 21. 긍정적인 | 3.15 | 13.33 | 8.13 | 53. 담배 피지 않는 | 1.90 | 5.00 | 3.25 |
| 22. 다정한/따뜻한 | 1.90 | 15.00 | 8.13 | 54. 부모님의 경제력 | 3.16 | 3.33 | 3.25 |
| 23. 똑똑한/지적능력 | 5.05 | 11.67 | 8.13 | 55. 부지런한 | 3.16 | 3.33 | 3.25 |
| 24. 가사노동을 잘하는 | 11.37 | 5.00 | 8.13 | 56. 사교적인 | 3.16 | 3.33 | 3.25 |
| 25. 경제 관념이 있는 | 8.21 | 6.67 | 7.32 | 57. 센스 있는 | 1.90 | 5.00 | 3.25 |
| 26.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 3.16 | 11.67 | 7.32 | 58. 운동을 좋아하는 | 1.90 | 5.00 | 3.25 |
| 27. 성실한 | 1.90 | 13.33 | 7.332 | 59. 자존감이 높은 | 3.16 | 3.33 | 3.25 |
| 28. 잘 웃는 | 11.37 | 3.33 | 7.32 | 60. 정직한 | 3.16 | 3.33 | 3.25 |
| 29.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 6.31 | 6.67 | 6.50 | 61. 좋은/안정적인 직장 | 5.05 | 1.67 | 3.25 |
| 30. 자상한/친절한 | 3.16 | 13.33 | 6.50 | 62. 좋은/나와 비슷한 학력 | 0.00 | 6.67 | 3.25 |
| 31. 책임감 있는 | 1.90 | 11.67 | 6.50 | 63. 나에게 혼신적 | 1.90 | 5.00 | 3.25 |
| 32.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 1.90 | 11.67 | 6.50 | | | | |

유의했고, $r = -.27$, $p = .003$, ‘능력/자원’과는 정적으로 유의했다, $r = .21$, $p = .020$. 그러나 물질주의와 ‘외모/매력’ 간에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r = .13$, $p = .159$. 다시 말해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이상적 배우자 특징으로 ‘능력/자원’은 더 언급하였고, ‘따뜻함/신뢰’는 덜 언급하였으나 ‘외모/매력’은 물질주의 수준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따뜻함/신뢰’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던 반면, $r = .14$, $p = .122$, ‘능력/자원’과는 정적으로, $r = .20$, $p = .026$, ‘외모/매력’과는 부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r = -.28$, $p = .002$. 즉, 남녀에 따라 ‘따뜻함/신뢰’가 언급된 비율의 차이는 없었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자원’과 관련된 특징을 더 많이 언급하고, 남성은 여성보다 ‘외모/매력’과 관련된 특징을 더 많이 언급하였다.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에서 성별과 물질주의의 상호작용

성별과 물질주의의 상호작용이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을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변인을 평균 중심화했다. ‘능력/자원’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성별과 물질주의를 투입한 결과, 모형 1의 두 예측 변인이 ‘능력/자원’을 7.20% 설명했다, $R^2(120) = 4.65$, $p = .011$. 성별은 유의 수준에 근접하게, $\beta = 0.17$, $p = .060$, 물질주의는 유의하게, $\beta = 0.18$.

$p = .045$ ‘능력/자원’을 예측했다. 이원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모형 2는 유의했으며, $R^2(119) = 4.49$, $p = .006$, 모형 1보다 설명변량이 유의수준에 근접하게 2.78% 증가하였고, $R^2(119) = 3.68$, $p = .058$,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 값도 유의수준에 근접했다, $\beta = 0.22$, $p = .058$ (표 2). 성별과 물질주의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순 기울기가 남성에서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beta = 0.04$, $t(119) = 0.30$, $p = .762$, 여성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 = 0.38$, $t(119) = 2.79$, $p = .006$. 그림 1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성의 경우 물질주의는 ‘능력/자원’ 언급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여성의 경우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능력/자원’ 언급 비율이 높았다.

‘외모/매력’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과 물질주의를 투입했을 때의 결과에 따르면 두 예측 변인이 ‘외모/매력’의 11.06%를 설명했다, $R^2(120) = 7.46$, $p = .001$. 예측변인인 성별, $\beta = -0.31$, $p = .001$, 과 물질주의, $\beta = 0.18$, $p = .041$, 모두 유의하게 ‘외모/매력’을 예측했다. 상관분석에서는 물질주의와 ‘외모/매력’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과 함께 투입한 결과 물질주의와 성별의 주 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원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모형 2는 유의했으나, $R^2(119) = 4.99$, $p = .003$, 모형 1보다 유의하게 설명변량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R^2(119) = 0.16$, $p = .695$ (표 3). 물질주의와 성별 간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했

표 2. 외모/매력에 대한 물질주의와 성별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123$)

| 단계 | 변인 | B | β | SE B | t | p | R^2 | ΔR^2 | ΔF |
|----|-----------|-------|---------|------|---------|------|-------|--------------|------------|
| 1 | 물질주의 | 0.06 | 0.18 | 0.03 | 2.07* | .041 | .11 | .11 | 7.45** |
| | 성별 | -0.12 | -0.31 | 0.04 | -3.57** | .001 | | | |
| 2 | 물질주의 | 0.05 | 0.15 | 0.04 | 1.30 | .195 | .11 | .00 | 0.40 |
| | 성별 | -0.13 | -0.31 | 0.04 | -3.56** | .001 | | | |
| | 물질주의 × 성별 | 0.02 | 0.05 | 0.06 | 0.39 | .695 | | | |

주. * $p < .05$ ** $p < .01$

표 3. 능력/자원에 대한 물질주의와 성별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123$)

| 단계 | 변인 | B | β | SE B | t | p | R^2 | ΔR^2 | ΔF |
|----|-----------|------|---------|------|-------|------|-------|--------------|------------|
| 1 | 물질주의 | 0.04 | 0.18 | 0.02 | 1.90* | .045 | .07 | .07 | 4.65* |
| | 성별 | 0.05 | 0.17 | 0.03 | 2.03† | .060 | | | |
| 2 | 물질주의 | 0.01 | 0.04 | 0.03 | 0.30 | .762 | .10 | .03 | 3.68† |
| | 성별 | 0.05 | 0.17 | 0.02 | 1.87† | .065 | | | |
| | 물질주의 × 성별 | 0.08 | 0.22 | 0.04 | 1.92† | .058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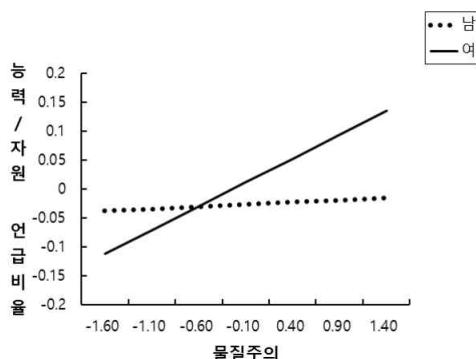
주. † $p < .06$ * $p < .05$ 

그림 1. '능력/자원'에서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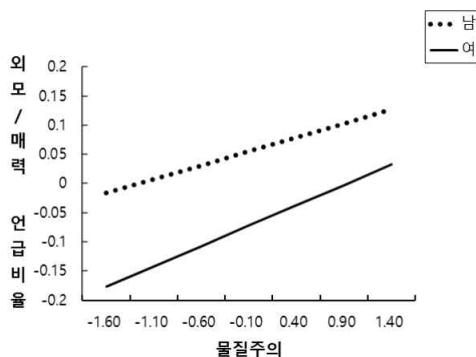


그림 2. '외모/매력'에서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

다, $\beta = 0.05$, $p = .695$.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남성과, $\beta = 0.15$, $t(119) = 1.30$, $p = .195$, 여성의 경우, $\beta = 0.22$, $t(119) = 1.64$, $p = .104$, 모두 기울기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

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물질주의와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많이 언급했다.

논 의

연구 1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유 응답 방식으로 기술한 이상적 배우자 특징을 축약하여 총 63개의 목록을 도출하고 물질주의, 성별에 따라 이 상적 배우자 특징을 다르게 언급했는지 검증하였다. 먼저 자유 응답식으로 언급된 63개 이상적인 배우자 특징 중에는 선행연구(Buss & Schmitt, 1993)에서 문화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밝혀졌던 '따뜻함/신뢰', '외모/매력', '능력/자원'과 관련된 특징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인 대학생들이 이상적 배우자 기준으로 효심과 가족과 관련된 특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Hiew, Halford, Van de Vijver, & Liu, 2015; Zhang & Kline, 2009)과 유사한 결과로,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예의 바른', '부모님의 경제력'과 같이 배우자의 효심과 가족 배경을 고려한 특징들도 발견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이상적 배우자 특징으로 '따뜻함/신뢰'는 더 적게, '능력/자원'은 더 많이 언급했으며 '외모/매력'이 언급되는 비율의 차이는 없었다(가설 1 부분적 지지). 비록 '외모/매력'의 언급 비율에는 물질주

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물질주의와 더 직접 관련이 있는 '능력/자원'에서는 물질주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성별과 각 기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가설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더 많이 언급했고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많이 언급했다(가설 2 지지). 이는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Buss, 1989; Buss et al., 1990). '따뜻함/신뢰'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남녀 모두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따뜻함/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선행연구(Buss & Barnes, 1986)와 유사한 결과이다.

물질주의와 함께 성별을 투입한 모형에서 이상적 배우자의 기준이 언급되는 비율을 예측할 때 '능력/자원' 기준에서만 유의수준 근접하게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인 경우에는 물질주의와 '능력/자원'의 언급 비율이 유의한 관계가 없었던 반면에 여성인 경우에는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능력/자원'을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모/매력'에서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물질주의와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많이 언급했다(가설 3 부분적 지지).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된 63개의 이상적인 배우자의 특징들을 요인분석하고 각 요인의 중요도가 물질주의 추구 경향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우선 연구 1에서 도출되었던 63개 이상적 배우자 특징이 다양한 문화권의 선행 연구(Lam et al., 2016)와 유사하게 세 가지 요인(따뜻함/신뢰, 능력/자원, 외모/매력)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확인했다(가설 4). 참여자들은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 특징들에 대해서 중요도를 유사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에게 63개의

특징에 대해 주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한 후 요인분석 했다.

연구 1에서는 물질주의의 수준에 따른 각각의 이상적 기준의 언급 비율만 비교했지만, 연구 2에서는 물질주의 수준에 따라 이상적 배우자 특징 3요인에 부여하는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내재적 기준에 속하는 '따뜻함/신뢰'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하지만, 외재적 기준에 속하는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의 중요도는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설 5). 연구 2에서도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성차 검증을 했으며 여성이 남성 보다 배우자의 '능력/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의 '외모/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 예상했다(가설 6). 마지막으로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에서 성별과 물질주의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서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설 7).

방법

연구대상

연구 2에서는 일곱 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 설문참여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참여에 동의한 총 39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370명(남 186, 여 184)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평균 연령은 만 21.95세, $SD = 2.35$ 였고 일학년이 85명 (22.97%), 이학년이 80명(21.62%), 삼학년이 89명(24.05%), 사학년이 75명(20.27%), 기타 29명 (7.84%), 무응답 12명(3.24%)이었다. 응답 시간은 약 20분 내외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음료 상품권 3,000원이 제공되었다.

측정 도구

이상적 배우자 특징 중요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1에서 제작된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들이 적힌 목록을 제공하고 각 특징이 본인의 이상적인 배우자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칠 점 Likert식 척도(1 = 매우 중요하지 않다, 7 = 매우 중요하다)로 평정하게 했다. 목록들의 순서를 무작위로 제시하게 하여 제시 순서에 따른 효과를 상쇄했다.

물질주의

연구 1에서 사용된 유지혜, 설경옥(2018)의 한국어판 물질주의 가치 척도를 사용했다. 연구 2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었다.

분석방법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차례로 자료를 분석했다. 첫째, 기초 통계 분석을 하여 이상형 특징을 포함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이상적 배우자상 구조는 주축 분해 요인분석으로 확인하였고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로 검증하였다. 셋째, 물질주의, 성별, 이상적 배우자 특징의 중요도 관계(가설 5, 6)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별로 상관분석을 했다. 마지막으로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 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가설 7).

결과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 요인분석 및 내적 일치도 분석

이상형 특징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주축분해 요인분석을 하기에 앞서 표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KMO의 값은 .91로 .60이상의 기준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계수 행렬이 단위 행렬인지 검정하는 Bartlett 검정의 구형성검정치는 $\chi^2(990) = 589.97, p < .001$ 로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행분석을 한 결과, 여섯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여섯 요인이 내용상 세 요인으로 묶일 수 있었으며 선행 연구에서 이상형 3요인 구조가 확인되었기(Fletcher et al., 1999) 때문에 요인 수를 세 요인으로 고정하여 프로맥스 회전을 했다. 그 결과, 분산율의 35.32%를 설명해주는 세 요인이 요인 적재량이 서로 많이 겹치지 않고 해석하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졌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해석 가능성(이순복, 1995)이 제시되기 때문에 해석 가능성이 높은 세 요인으로 요인 수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요인 부하량이 .30 미만인 특징들과 두 요인의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0이하인 교차부하된 요인(Schmitt & Sass, 2011)은 제외했다. 요인 1은 '따뜻함/신뢰'의 특징들로 배려심, 이해심이 많은, 책임감 있는, 지혜로운, 성실한, 긍정적인, 대화가 잘 통하는, 바람기 없는 등의 특징이 포함되었다. 요인 2는 '능력/자원' 요인으로 경제력이 있는, 좋은/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능력 있는, 부모님의 경제력 등 사회적 지위나 자원과 관련된 특징이 포함 되었다. 요인 3은 '외모/매력' 요인으로 예쁜/잘생긴, 몸매가 좋은, 애교가 많은,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등 매력과 생동감과 관련된 특징이 포함되었다. 요인별 적재값은 표 4와 같고 요인 부하량이 .30이상이고 교차부하되지 않은 요인은 굵은 글씨로 표기했다. 각각의 요인 내에 있는 하위요인에 서로 상호상관이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값을 산출했을 때 '따뜻함/신뢰'는 .93, '능력/자원'은 .88, '외모/매력'은 .76으로 모두 양호했다.

표 4.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의 요인 적재량

|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 | 요인별 적재값 | | |
|----------------------|---------|-----|------|
| | 1요인 | 2요인 | 3요인 |
| 1. 배려심 있는 | .70 | .31 | .19 |
| 3. 이해심이 많은 | .68 | .37 | .28 |
| 31. 책임감 있는 | .62 | .33 | .08 |
| 23. 지혜로운/현명한 | .61 | .38 | .26 |
| 13. 가정적인 | .60 | .44 | .03 |
| 20. 긍정적인 | .58 | .29 | .33 |
| 47. 공감 능력이 있는 | .58 | .36 | .23 |
| 39. 신뢰할 수 있는 | .58 | .13 | .02 |
| 27. 성실한 | .58 | .42 | .07 |
| 43. 온화한 | .57 | .37 | .21 |
| 21. 다정한/따뜻한 | .57 | .31 | .21 |
| 7. 대화가 잘 통하는 | .56 | .17 | .17 |
| 33. 밝은 성격 | .56 | .26 | .40 |
| 55. 부지런한 | .55 | .42 | .21 |
| 51. 서로 존중해주는 | .55 | .12 | .04 |
| 29.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 .54 | .40 | .21 |
| 30. 자상한/친절한 | .54 | .39 | .17 |
| 60. 정직한 | .53 | .14 | .04 |
| 11. 예의 바른 | .53 | .33 | .14 |
| 46. 겸손한 | .53 | .37 | .23 |
| 52. 감정 표현을 잘하는 | .52 | .25 | .28 |
| 41. 소신/주관이 있는 | .52 | .22 | .14 |
| 42.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 .52 | .23 | .10 |
| 48.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 .50 | .18 | .18 |
| 25. 경제 관념이 있는 | .49 | .29 | .15 |
| 14. 가치관이 맞는 | .48 | .32 | .03 |
| 26.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 .47 | .06 | .04 |
| 5. 착한/좋은 인성 | .46 | .26 | .06 |
| 35. 성 평등적인 | .46 | .38 | .14 |
| 15. 꿈과 목표가 있는 | .45 | .29 | .09 |
| 59. 자존감이 높은 | .45 | .33 | .17 |
| 45. 가식 없는/솔직한 | .44 | .17 | .21 |
| 38. 바람기 없는, 한 사람만 보는 | .40 | .12 | -.10 |

표 4.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의 요인 적재량 (계속)

|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 | 요인별 적재값 | | |
|--------------------------------|---------|-----|------|
| | 1요인 | 2요인 | 3요인 |
| 18. 아이들을 좋아하는 | .37 | .24 | .09 |
| 53. 담배 피지 않는 | .26 | .23 | .02 |
| 10. 경제력이 있는 | .27 | .76 | .33 |
| 61. 좋은/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 .23 | .75 | .21 |
| 4. 능력 있는 | .36 | .74 | .27 |
| 54. 부모님의 경제력이 있는 | .13 | .67 | .24 |
| 62. 좋은/나와 비슷한 학력 | .28 | .65 | .29 |
| 22. 똑똑한/지적능력 | .48 | .65 | .35 |
| 40. 지적인 | .46 | .58 | .35 |
| 57. 센스 있는 | .44 | .54 | .42 |
| 24. 가사노동을 잘하는 | .40 | .54 | .25 |
| 37.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이 있는 | .43 | .51 | .20 |
| 8. 키 | .07 | .49 | .19 |
| 6. 재미있는/유머러스한 | .35 | .49 | .36 |
| 63. 나에게 헌신적 | .46 | .48 | .23 |
| 36. 차분한 | .34 | .46 | .23 |
| 32.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 .39 | .43 | .07 |
| 12. 건강한 | .41 | .42 | .20 |
| 56. 사교적인 | .39 | .42 | .38 |
| 58. 운동을 좋아하는 | .25 | .36 | .33 |
| 19. 같은 종교 | .28 | .34 | -.04 |
| 2. 예쁜/잘생긴 | .01 | .31 | .63 |
| 16. 몸매가 좋은 | .01 | .29 | .63 |
| 34. 애교가 많은 | .08 | .13 | .61 |
| 17. 귀여운 | .05 | .05 | .58 |
| 50. 잘 꾸미는 | .14 | .37 | .54 |
| 44. 훈훈한/인상이 좋은 | .43 | .45 | .53 |
| 28. 잘 웃는 | .43 | .16 | .44 |
| 49.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 .28 | .20 | .39 |
| 9. 유사한 취미생활/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 .24 | .31 | .36 |

주. 요인 부하량이 .30이상이며 두 요인의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0이상인 값을 진하게 표시함.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이상적 배우자 특징으로 ‘따뜻함/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M = 5.89, SD = 0.54$), ‘외모/매력’($M = 4.65, SD = 0.94$), ‘능력/자원’($M = 4.51, SD = 0.90$) 순으로 중요하게 보고했다. 물질주의 평균값은 2.91이고 표준편차는 0.70이었고, 성별 간 평균 차이는 없었다, $t(368) = -0.15, p = .878$. 물질주의와 ‘따뜻함/신뢰’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지만, $r = -.04, p = .440$, ‘능력/자원’, $r = .28, p < .001$, 과 ‘외모/매력’, $r = .31, p < .001$, 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다시 말해,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따뜻함/신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과 ‘따뜻함/신뢰’, $r = .24, p < .001$, ‘능력/자원’, $r = .32, p < .001$, 과는 정적으로, ‘외모/매력’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 = -.36, p < .001$. 다시 말해, 여성이 남성보다 ‘따뜻함/신뢰’와 ‘능력/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남성은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

성별과 물질주의의 상호작용이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을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변인을 평균 중심화 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능력/자원’을 종속 변인, 성별과 물질주

의를 예측변인으로 한 모형 1을 검증한 결과,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과 물질주의가 종속변인의 18.10%를 설명했다, $R^2, 367) = 40.54, p < .001$. ‘능력/자원’을 예측하는 물질주의와 성별의 주 효과가 각각 $\beta = 0.28, p < .001, \beta = 0.32, p < .001$ 로 모두 유의했다. 이 원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모형 2는 유의했으나, $R^2, 366) = 27.19, p < .001$, 모형 1보다 설명변량이 0.13% 증가하여 모형 1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2단계의 모형의 결과를 타당하다고 볼 수 없었다, $R^2, 366) = 0.58, p = .447$. 물질주의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 값도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05, p = .447$.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남성과, $\beta = 0.24, t(366) = 3.60, p < .001$, 여성의 경우, $\beta = 0.31, t(366) = 4.73, p < .001$, 모두 기울기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3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남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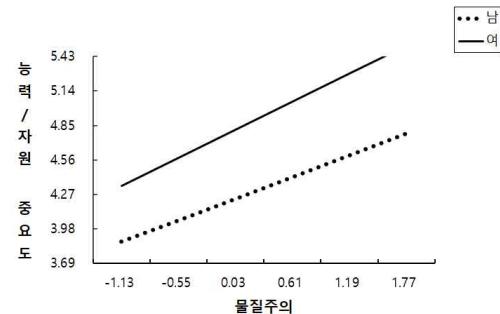


그림 3. ‘능력/자원’에서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

표 5. ‘능력/자원’에 대한 물질주의와 성별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370$)

| 단계 | 변인 | B | β | SE B | t | P | R^2 | ΔR^2 | ΔF |
|----|-----------|------|---------|------|---------|--------|-------|--------------|------------|
| 1 | 물질주의 | 0.36 | 0.28 | .06 | 5.90*** | < .001 | .18 | .18 | 40.54*** |
| | 성별 | 0.58 | 0.32 | .08 | 6.76*** | < .001 | | | |
| 2 | 물질주의 | 0.31 | 0.24 | .09 | 3.60*** | < .001 | .18 | .00 | 0.58 |
| | 성별 | 0.58 | 0.32 | .09 | 6.75*** | < .001 | | | |
| | 물질주의 × 성별 | 0.09 | 0.05 | .12 | 0.76 | .447 | | | |

주. *** $p < .001$

표 6. '외모/매력'에 대한 물질주의와 성별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370$)

| 단계 | 변인 | B | β | $SE B$ | t | p | R^2 | ΔR^2 | ΔF |
|----|-----------|-------|---------|--------|----------|--------|-------|--------------|------------|
| 1 | 물질주의 | 0.42 | 0.31 | .06 | 6.72*** | < .001 | .23 | .23 | 53.69*** |
| | 성별 | -0.69 | -0.37 | .09 | -7.95*** | < .001 | | | |
| 2 | 물질주의 | 0.34 | 0.25 | .09 | 3.85*** | < .001 | .23 | .00 | 1.49 |
| | 성별 | -0.69 | -0.37 | .09 | -7.95*** | < .001 | | | |
| | 물질주의 × 성별 | 0.15 | 0.08 | .12 | 1.22 | .223 | | | |

주. *** $p < .001$

모두 물질주의가 높아질수록 '능력/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물질주의와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이는 그대로 나타났다.

'외모/매력'을 종속변인, 성별과 물질주의를 예측변인으로 한 모형 1을 검증한 결과,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과 물질주의가 종속변인의 22.63%를 설명했다, $R^2(367) = 58.69$, $p < .001$. '외모/매력'을 예측하는 물질주의와 성별의 주 효과가 각각 $\beta = 0.31$, $p < .001$, $\beta = -0.37$, $p < .001$ 로 모두 유의했다. 이원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모형 2는 유의했으나, $R^2(366) = 36.34$, $p < .001$, 모형 1보다 설명변량이 0.31% 증가했으며 모형 1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2 단계의 모형의 결과를 타당하다고 볼 수 없었다, $R^2(366) = 1.49$, $p = .223$. 물질주의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 값도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beta = 0.08$, $p = .223$.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남성과, $\beta = 0.25$, $t(366) = 3.85$, $p < .001$, 여성의 경우, $\beta = 0.36$, $t(366) = 5.64$, $p < .001$, 모두 기울기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럼 4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남녀 모두 물질주의가 높아질수록 '외모/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물질주의와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이는 그대로 나타났다.

논의

한국 대학생이 지니는 이상형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요인분석 했을 때 선행 연구(Fletcher et al., 2004; Lam et al., 2016)와 유사하게 이상적 배우자 기준은 '따뜻함/신뢰', '능력/자원', '외모/매력'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됨을 확인했다. 이는 성공적인 짹짓기를 위해 모든 문화권에서 유사한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배우자를 평가하도록 진화되었다는 진화심리학적 관점(Fletcher et al., 1999)과 일치하는 결과다(가설 4 지지). 또한, 이 연구의 결과에는 집단주의 문화권과 관련된 특징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따뜻함/신뢰' 기준 내에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강조되는 효(Hiew et al., 2015)와 관련된 '예의 바른', '겸손한',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능력/자원' 기준 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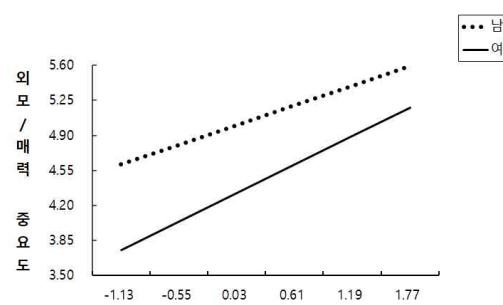


그림 4. '외모/매력'에서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

는 ‘부모님의 경제력이 있는’의 특징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대만과 북미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Lam 등(2016)의 연구에서 ‘능력/자원’ 기준 내에 확대가족과 관련된 특징이 포함되었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상적 배우자 기준의 중요도와 물질주의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연구 1에서는 물질주의가 높을 때 ‘따뜻함/신뢰’와 관련된 특징을 낮은 빈도로 언급했던 것과는 다르게 연구 2에서는 물질주의가 ‘따뜻함/신뢰’의 중요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즉, 물질주의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관계를 성공적으로 맺는 데 필요한(Fletcher et al., 2004) ‘따뜻함/신뢰’에는 가장 높은 중요도가 부여되었다. 반면에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내재적 기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외재적 기준에 속하는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가설 5 부분적 지지).

물질주의와 함께 성별 또한 이상적인 배우자 기준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이다(Buss, 1989; Buss & Schmitt, 1993; Fletcher et al., 2004)(가설 6 지지). ‘따뜻함/신뢰’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연구 1과 달리 연구 2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따뜻함/신뢰’를 더 중요하다고 보고했고, 이는 Fletcher 등(1999)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을 검증했을 때는 ‘외모/매력’과 ‘능력/자원’ 모두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가설 7 기각). 연구 1에서는 유의수준에 근접하게 ‘능력/자원’ 요인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난 것과 달리 연구 2에서는 물질주의와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매력’에서도 연구 1과 유

사하게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조절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남녀 모두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물질주의와 상관없이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남성은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종합논의

이 연구는 물질주의가 남녀 대학생의 이상적 배우자상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이들이 이상적인 배우자를 평가할 때 ‘따뜻함/신뢰’, ‘외모/매력’, ‘능력/자원’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내재적 기준에 속하는 ‘따뜻함/신뢰’는 적게 언급하고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며 외재적 기준에 속하는 ‘외모/매력’과 ‘능력/자원’을 더 많이 언급하고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지 검증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의 ‘능력/자원’을,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의 ‘외모/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성차를 확인하고 성별과 물질주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했다.

이상적 기준 모형의 연구 방법을 따라(Fletcher et al., 1999) 연구 1은 남녀 대학생 123명에게 자유 응답 방식으로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을 응답하도록 하여 이상적 배우자 특징을 63개 목록으로 축약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된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 목록을 바탕으로 남녀 대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한 후 요인분석 했다. 그 결과, 이상적 배우자 기준으로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이 발견되었지만 다른 문화권의 연구결과(Fletcher et al., 1999; Lam et al., 2016)와 유사하게 ‘따뜻함/신뢰’, ‘능력/자원’, ‘외모/매력’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질주의에 따라 이상적 배우자 기준 언급 비율과 중요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구 1에서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외재적 기준 중 ‘능력/자원’은 더 많이 언급했지만, 물질주의와 ‘외모/매력’의 언급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한편, 연구 2에서 중요도를 비교했을 때는 물질주의가 높을 수록 외재적 기준에 속하는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의 중요도를 모두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외재적 기준 중에서는 ‘외모/매력’보다는 물질주의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능력/자원’을 더 많이 언급했지만, 중요도를 평가할 때는 외재적 기준에 속하는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1에서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할수록 내재적 기준인 ‘따뜻함/신뢰’를 언급하는 비율이 낮은 것과는 다르게, 연구 2에서 ‘따뜻함/신뢰’는 물질주의 수준과 상관없이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적인 배우자 기준의 문화 차를 연구했던 선행연구들에서도 ‘따뜻함/신뢰’의 중요도는 문화 차가 없었다 (Buss et al., 1993; Lam et al., 2016). 비록 내재적 기준에 속하는 ‘따뜻함/신뢰’가 외재적 가치인 물질주의와는 상충하는 기준이지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Fletcher et al., 2004) 물질주의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 일관되게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남성은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더 많이 언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1에서 ‘능력/자원’의 언급 비율은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도 유의수준에 근접했지만, 연구 2에서 ‘능력/자원’의 중요도에 대해서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물질주의가 높아질수록 남성과 달리 여성만 ‘능력/자원’을 이상적 배우자 기준으로 언급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으나, 중요도에서는 물질주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자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만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선호했던 선행연구(Li et al., 2011)와 유사하게 이 연구에서도 여성만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능력/자원’의 언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스스로 경제력을 획득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에서 경제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임을 제시한 사회문화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Eagly & Wood, 1999). 또한,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위험 감수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여성(Feingold, 1992)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할 때 자신과 자신의 자녀 생존에 더 불안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Burroughs & Rindfleisch, 2002) 이상적 배우자 기준으로 ‘능력/자원’ 기준을 더 쉽게 언급했을 수 있다. 한편, ‘외모/매력’ 기준은 연구 1과 연구 2에 모두 물질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 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설과는 다른 결과이지만, 성차가 물질주의와 상관없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이가 다른 사회문화적 변인들로 인해 쉽게 조절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Eagly & Wood, 1999; Schmitt,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한국 대학생들도 다른 문화권에서와 유사하게 친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과 관련된 기준, 신체적 매력과 생동감과 관련된 기준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배우자를 평가한다는 것을 밝혀 이 세 가지 기준이 성공적인 생식을 위해 문화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이 된다는 진화심리학적 관점의 연구를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Fletcher et al., 1999). 기준의 이상적 기준 모형 연구가 주로서구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와서야 이상형 기준 모형의 문화 보편적인 측면과 차이점을 함께 검증하기 시작했다(Lam et al., 2016).

둘째, 이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 주요

가치 중 하나인 물질주의가 대학생들의 이상적 배우자 기준과 관련 있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이상적 배우자 기준에 있어 사회 문화적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Chang, Wang, Shackelford, & Buss, 2011; Lam et al., 2016) 배우자 선호와 가치의 관계를 직접 확인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물질주의는 개인 자신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이상적인 배우자의 기준에 대한 평가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능력/자원’과 ‘외모/매력’의 중요도가 더 높았다. 이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제시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과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는 것이라는 두 가지 이상(Dittmar 2007; Wang & Waller, 2006)이 자신뿐 아니라 이상적 배우자상의 기준으로도 함께 나타남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셋째, 물질주의와 이상적인 배우자 기준의 관계에서 성별 간 차이를 함께 검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의 성 평등 지수가 높거나(Zentner & Mitura, 2012) 여성의 경제력이 높아질 때(Moore et al., 2006)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의 ‘능력/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이가 감소했던 결과와는 달리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할 때는 오히려 차이가 커지거나 그대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물질주의가 정신건강 취약과 더 관계가 높은 요인일 뿐 아니라(Dittmar et al., 2014) 이상적 배우자상을 예측하는 데도 남성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이 연구 대상이 20대 초반 대학생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만 연령집단에 따라 선호하는 배우자의 모습과(Buunk, Dijkstra, Fetschenhauer, & Kenrick, 2002) 물질주의 추구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Jasper & Pieters, 2016).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평균 결혼 나이인 3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하여 이들의 이상적 배우자상의 기준과 20대 대학생의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장기 관계일수록

사회 경제적 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해(Brunell & Webster, 2013) 장기 관계인 배우자상과 물질주의와의 관계를 연구했다. 하지만 물질주의는 자극 추구와도 높은 상관이 있고, 자극 추구는 단기 관계에서의 성적 만족과 관계가 있다(Jonason, 2013). 후속연구에서는 장기 관계뿐 아니라 단기관계에서 물질주의의 역할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이상적 배우자 기준 중 외재적 기준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지만 실제 선택에서 차이를 검증하지는 못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실제 배우자 선택, 관계 만족도 및 안정성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성현 (2015). 잡지광고에 나타난 여성의 신체 이미지 변화-1971년부터 2012년까지 의류, 장신구광고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51, 32-42.
- 백지숙, 박성연 (2004).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7), 119-129.
- 서병숙, 정해은 (1994). 배우자 선택과 결혼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연구, 12, 209-227.
- 유지혜, 설경옥 (2018).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385-410.
- 이순복 (1995). 요인분석 I. 서울: 학지사.
- Barnea, M. F., & Schwartz, S. H. (1998). Values and voting. *Political Psychology*, 19(1), 17-40.
- Brunell, A. B., & Webster, G. D. (2013). Self-determination and sexual experience in dating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 970-987.
- Burroughs, J., & Rindfuss, A. (2002). Materialism

- and Well Being: A Conflicting Values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9(3), 348-370.
- Buss, D. M. (1989). Sex differences in human mate preferences: evolutionary hypotheses tested in 37 cultures. *Behavioural and Brain Sciences*, 12, 1-49.
- Buss, D. M. (1995). Psychological sex differences: Origins through sexual selection. *American Psychologist*, 50(3), 164-168.
- Buss, D. M., & Barnes, M. (1986). Preferences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3), 559-570.
- Buss, D. M., & Schmitt, D. P. (1993). Sexual strategies theor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uman mating. *Psychological Review*, 100(2), 204-232.
- Buss, D. M., Abbott, M., Angleitner, A., Asherian, A., Biaggio, A., Blanco-Villasenor, A., . . . Tang, K. S. (1990). International preferences in selecting mates: A study of 37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5-47.
- Buunk, B. P., Dijkstra, P., Fetchenhauer, D., & Kenrick, D. T. (2002).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criteria for various involvement levels. *Personal Relationships*, 9(3), 271-278.
- Chang, L., Wang, Y., Shackelford, T. K., & Buss, D. M. (2011). Chinese mate preferences: Cultural evolution and continuity across a quarter of a centu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5), 678-683.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Seoul: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ittmar, H. (2007). The costs of consumer culture and the "cage within": the impact of the material "good life" and "body perfect" ideals on individuals' identity and well-being. *Psychological Inquiry*, 18(1), 23-31.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 Eagly, A. H., & Wood, W. (1999). The origins of sex differences in human behavior: Evolved dispositions versus social roles. *American Psychologist*, 54(6), 408-423.
- Eastwick, P. W., Eagly, A. H., Glick, P., Johannessen-Schmidt, M. C., Fiske, S. T., Blum, A. M., . . . & Manganelli, A. M. (2006). Is traditional gender ideology associated with sex-typed mate preferences? A test in nine nations. *Sex Roles*, 54(9-10), 603-614.
- Feingold, A. (1992).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preferences: A test of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25-139.
- Fletcher, G. J. O., & Simpson, J. A. (2000). Ideal standards in close relationships: Their structure and func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3), 102-105.
- Fletcher, G. J. O., Simpson, J. A., & Thomas, G. (2000). Ideals, perceptions, and evaluations in early relationship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933-940.
- Fletcher, G. J. O., Simpson, J. A., Thomas, G., & Giles, I. (1999). Ideals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72-89.
- Fletcher, G. J. O., Tither, J. M., O'Loughlin, C., Friesen, M., & Overall, N. (2004). Warm and homely or cold and beautiful? Sex differences in trading off traits in mate sele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6), 659-672.
- Goodwin, R., & Tinker, M. (2002). Value priorities

- and preferences for a relationship partn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8), 1339-1349.
- Harper, B., & Tiggemann, M. (2008). The effect of thin ideal media images on women's self-objectification, mood, and body image. *Sex Roles*, 58(9-10), 649-657.
- Hatfield, E., & Sprecher, S. (1995). Men's and women's preferences in marital partners in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Japa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6), 728-750.
- Hiew, D. N., Halford, W. K., Van de Vijver, F. J., & Liu, S. (2015). Relationship standards and satisfaction in Chinese, Western, and intercultural Chinese - Western couples in Australi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6(5), 684-701.
- Jaspers, E. D., & Pieters, R. G. (2016). Materialism across the life span: An age-period-cohort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1(3), 451-473.
- Jonason, P. K. (2013). Four functions for four relationships: Consensus definitions of university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2(8), 1407-1414.
- Kasser, T. (2016). Materialistic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 489-514.
- Lam, B. C., Cross, S. E., Wu, T. F., Yeh, K. H., Wang, Y. C., & Su, J. C. (2016). What do you want in a marriage? Examining marriage ideals in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6), 703-722.
- Li, N. P., Patel, L., Balliet, D., Tov, W., & Scollon, C. N. (2011). The incompatibility of materialism and the desire for children: Psychological insights into the fertility discrepancy among modern countr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1(3), 391-404.
- Moore, F. R., Cassidy, C., Smith, M. J. L., & Perrett, D. I. (2006). The effects of female control of resources on sex-differentiated mate preference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7(3), 193-205.
- Richins, M. L. (2004). The material values scale: Measurement properties and development of a short for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1), 209-219.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Rodriguez, L. M., Hadden, B. W., & Knee, C. R. (2015). Not all ideals are equal: Intrinsic and extrinsic ideals in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22(1), 138-152.
- Schmitt, T. A., & Sass, D. A. (2011). Rotation criteria and hypothesis testing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mplications for factor pattern loadings and interfactor correlation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71(1), 95-113.
- Schmitt, D. P. (2012). When the difference is in the details: A critique of Zentner and Mitura (2012) "Stepping out of the Caveman's Shadow: Nations' Gender Gap Predicts Degree of Sex Differentiation in Mate Preferences". *Evolutionary Psychology*, 10(4), 720-726.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 Wang, P. Z., & Waller, D. S. (2006). Measuring consumer vanity: A cross cultural validation. *Psychology & Marketing*, 23(8), 665-687.
- Zentner, M., & Mitura, K. (2012). Stepping out of the caveman's shadow: Nations' gender gap predicts degree of sex differentiation in mate preferences. *Psychological Science*, 23(10), 1176-

1185.

Zhang, S., & Kline, S. L. (2009). Can I make my own decision? A cross-cultural study of perceived social network influence in mate selec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0*(1), 3-23.

1 차원고접수 : 2018. 04. 17.

수정원고접수 : 2018. 07. 16.

최종게재결정 : 2018. 10. 20.

Korean College Students' Materialism and Ideal Mating Partner Standards

Je Sun Kim

Kyoung Ok Seol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materialism would predict Korean college students' ideal mating partner standards. We hypothesized that the ratio and importance of Warmth/Trustworthiness, Ability/Resources, and Appearance/Attractiveness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materialism and gender. We also hypothesiz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materialism and gender is significant. In study 1, we asked 123 college students to freely describe their ideal mating partner standards, and we examined how materialism and gender would predict the ratio of Warmth/Trustworthiness, Ability/Resources, and Appearance/Attractiveness. As a result, we found that students who scored higher on materialism listed more Ability/Resource words as their ideal mating partner standards. We also found the gender difference; women listed more of Ability/Resources related standards while men listed more of Appearance/Attractiveness related standards. The interaction between materialism and gender also predicted significantly the Ability/Resource standard. In study 2, we asked 370 college students to rate the importance of ideal mating partner standard list from study 1 and examined the factor structure. Furthermore, we investigated how the importance of ideal mating partner standards would differ by one's materialism and gender. As predicted, we found that college student who score higher materialism considered that both Ability/Resources and Appearance/Attractiveness standards were more important. However, materialism did not predict the importance of Warmth/Trustworthiness. Gender and the interaction between materialism and gender were not significantly predicted the importance of any of the standards.

Key words : materialism, Ideal Standard Model(ISM), Korean college students, values, sex differences

부 록

연구 1: 2차 평정 결과

| 구분 |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 |
|--------------------|-------------------------------|
| | 2. 배려심 있는 |
| | 3. 이해심이 많은 |
| | 5. 착한/좋은 인성 |
| | 7. 대화가 잘 통하는 |
| | 9. 유사한 취미 생활/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
| | 11. 예의 바른 |
| | 13. 가정적인 |
| | 14. 가치관이 맞는 |
| | 15. 지혜로운/현명한 |
| | 19. 아이들을 좋아하는 |
| | 20. 같은 종교 |
| | 21. 긍정적인 |
| | 22. 다정한/따뜻한 |
| | 24. 가사노동을 잘하는 |
| | 26.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
| | 27. 성실한 |
| | 29.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
| | 30. 자상한/친절한 |
| | 31. 책임감 있는 |
| | 35. 성 평등적인 |
| | 38. 바람기 없는, 한 사람만 보는 |
| | 39. 신뢰할 수 있는 |
| | 41. 소신/주관이 있는 |
| | 42.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
| | 43. 온화한 |
| | 45. 가식 없는/솔직한 |
| | 46. 겸손한 |
| | 47. 공감 능력이 있는 |
| | 48.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
| | 51. 서로 존중해주는 |
| | 52. 감정 표현을 잘하는 |
| | 55. 부지런한 |
| | 59. 자존감이 높은 |
| | 60. 정직한 |
| | 63. 나에게 헌신적 |
| 따뜻함/ 신뢰 | |

연구 1: 2차 평정 결과 (계속)

| 구분 |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 |
|--------------|---------------------|
| | 4. 능력 있는 |
| | 10. 경제력이 있는 |
| | 16. 꿈과 목표가 있는 |
| | 23. 똑똑한/지적능력 |
| | 25. 경제 관념이 있는 |
| | 32.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
| | 37.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이 있는 |
| | 40. 지적인 |
| | 54. 부모님의 경제력 |
| | 56. 사교적인 |
| | 61. 좋은/안정적인 직장 |
| | 62. 좋은/나와 비슷한 학력 |
| | 1. 예쁜/잘생긴 |
| | 6. 재미있는/유머러스한 |
| | 8. 키 |
| | 12. 건강한 |
| | 17. 몸매가 좋은 |
| | 18. 귀여운 |
| | 28. 잘 웃는 |
| | 33. 밝은 성격 |
| | 34. 애교가 많은 |
| | 36. 차분한 |
| | 44. 훌륭한/인상이 좋은 |
| | 49.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
| | 50. 잘 꾸미는 |
| | 53. 담배 피지 않는 |
| | 57. 센스 있는 |
| | 58. 운동을 좋아하는 |
| 외모/매력 | |